

# 무왕·선화공주 무덤?... 익산 쌍릉 실체 밝힌다

### 첫 발굴 100년만에 재조사

### 지형 복원·정밀실측 중점

익산에 나란히 조성된 백제 고분인 쌍릉(雙陵)은 향가 '서동요'에 등장하는 백제 무왕과 선화공주의 무덤일까.

피장자를 놓고 학계에서 의견이 분분한 익산 쌍릉(사적 제87호)의 실체를 밝히는 작업이 시작된다. 첫 발굴 100년만에 다시 이뤄지는 조사다.

익산시는 오는 21일 오후 대왕릉 앞에서 안전한 발굴을 기원하는 고유제를 시작으로 일제감점기간인 1917년 일본인 대왕릉 정밀발굴조사에 착수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왕릉은 지름 30m, 높이 5m의 원형 봉토분으로 백제 30대 무왕 묘로 여겨왔다. 대왕릉은 일제감점기간인 1917년 일본인 야쓰이 세이이치에 의해 발굴된 횡혈식 석



100년 만에 재발굴되는 익산 쌍릉.

<익산시 제공>

실규모와 금송제 목관에 비해 충남 부여군 능산리 고분군 왕릉에 비교되는 무덤으로 인정되었다.

통설은 부여에서 익산으로 천도를 추진한 무왕(재위 600~641)과 그의 부인인 선화공주가 묻혀 있다는 것이다. 고려사, 세

종지리지, 동국여지승람에는 쌍릉이 무강왕(武康王)과 비(妃)의 무덤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쌍릉 중 대왕묘는 무왕, 소왕묘는 선화공주의 무덤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립전주박물관은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전주박물관은 지난 2016년 1월

'익산쌍릉 일제감점기 자료조사보고서'에 대왕릉에서 출토된 치아가 여성의 것이고, 토기도 신라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일각에서 대왕릉의 피장자가 무왕이 아닌 무왕의 아내인 신라 선화공주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번 발굴조사는 쌍릉에 대한 체계적인 발굴을 통해 정확한 피장자 등을 밝히기 위한 1단계 사업이다.

익산시,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마한백제문화연구소는 지하물리탐사를 비롯한 과학적인 조사를 한 후 정밀조사에 들어간다. 특히 일제감점기 때 대왕릉 모습을 지형 복원하고 발굴고분 정밀실측 등을 통해 봉분 축조방법과 석실규모 및 형태를 밝히는데 주안점을 둘 예정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100년만의 발굴을 계기로 쌍릉과 백제왕도 익산은 물론 고대 문화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유정영기자 yjy@

# "추석 차례상, 지역 농·특산물 애용하세요"

### 남원·정읍 등 인터넷 쇼핑몰

### 명절선물·제수용품 할인

전북 자치단체들이 추석에 앞두고 지역 농특산물 판매에 총력을 쏟고 있다.

남원시는 오는 29일까지 전국 주요 도시에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사진)를 열고 지역 특산물 판매에 나선다.

직거래장터는 서울 광화문광장과 정부서울청사, 서울시청, 세종시, 정부대전청사, 광양시, 전북 혁신도시 등 17곳에 개설된다. 지리산과 섬진강 일대의 청정 지역에서 생산된 배, 사과, 꿀, 한우, 한과 등을 싸게 판다. 지역 특산품인 목기, 병풍, 허브제품도 있다.

남원시는 자체 인터넷 쇼핑몰(www.lovenamwon.co.kr)에서도 한가위를 맞아 춘향각 각종 농·특산품을 특별 할인 판매한다.

정읍도 온라인 농특산물 직거래장터인



'단풍미인쇼핑몰'을 통한 특별 할인판매에 돌입했다. 단풍미인 쇼핑몰에서는 지역에서 생산된 800여개 농특산물을 판매하고 있다.

정읍시는 오는 28일까지 최고 50%까지 할인한 가격으로 지역 농특산물을 판매한다. 대상은 명절 선물과 제수로 인기를 끄

는 한과, 한우, 송편, 잡곡 등으로, 10개나 15개를 사면 1개를 더 주는 행사도 한다.

주문은 단풍미인쇼핑몰(www.danpoongmall.com)로 하면 되고 상품은 우체국 무료 택배로 배송된다.

/남원=백성기자 bs8787@ /정읍=박기섭기자·전북취재본부장

# 군산시, 도시재생 추진단 발족

### 주거정비사업 등 5개팀 구성

군산시가 19일 도시재생을 맡을 추진단을 구성해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도시재생뉴딜사업추진단은 한준수 부시장을 단장으로 도시재생정책지원팀, 재

생사업발굴팀, 사업시행평가관리팀, 소규모 주거정비지원팀, 근대건축자산 경관보전팀 등 5개팀 20명으로 꾸렸다.

추진단은 사업 발굴 및 전략수립, 재원 확보, 주민 참여체계 구축, 공모 신청, 사업 시행·평가 등을 총괄한다. 소규모 주거

정비사업을 발굴하고 공기업과 민간사업자를 유치해 연계사업도 하며, 군산에 산재한 근대건축자산과 경관을 조사하고 보전 및 콘텐츠 구축도 할 방침이다.

추진단은 원활한 사업 추진과 협업 구축을 위해 읍면동 통장단, 주민자치위원회, 상인회, 협동조합과 수시로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군산=박금석기자 nogusu@

# 스마트시티 만들기

### 전주시 팔 걷어붙여

시민들이 무선 네트워크망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 도시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스마트 시티' 구현을 위해 전주시가 팔을 걷어붙였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대표 브랜드인 '스마트시티' 조성에 발빠르게 대응, 관련 산업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스마트시티는 교통과 보건, 안전, 에너지관리 등 ICT기술에 의해 스스로 상호작용하면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최첨단 도시를 말한다. 현재 미국, 유럽, 일본 등 전 세계 130여 개국 이상이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전주시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관련 업체들과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원도심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전주형 스마트시티 실증모델 및 서비스모델을 개발 중이다. 관심을 갖는 분야는 우선적으로 스마트가로등, 스마트 주차 및 출입관리, 스마트 에너지관리, 무선네트워크 구축, 통합관제플랫폼 개발 등이다.

전주시는 이러한 스마트시티가 구현되면 실시간 전력 사용량 관리로 가계 지출 완화 및 에너지 절약이 가능하고 주차 정보제공으로 주차가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폐쇄회로(CCTV) 모니터링을 통해 각종 재난과 범죄 발생을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조치로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전주시 설명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



# 완도군, 지역 발전 힘 모으기

### 워크숍 성료... 읍·면 지도자들 머리 맞대

완도 12개 읍·면 지역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완도 발전을 위한 지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군정에 담아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기로 뜻을 모았다.

(사)완도군번영회는 최근 완도읍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2017 지역리더 희망완도 워크숍'을 열고 완도 발전을 위한 소통·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완도군번영회는 1934년 순수한 봉사단체로 80여년동안 군민 권익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을 쏟아왔다. 이날 워크숍에는 김동교 번영회장을 비롯해 윤영일 국회의원, 신우철 완도군수, 박종연 완도군의회 의장, 각

읍·면장과 번영회장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워크숍은 초청 강사 특강, 어울림 한마당 등으로 진행됐다.

김동교 완도군번영회장은 "섬으로 이뤄진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소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지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하나로 모아 지역 발전의 동력으로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도 "완도의 미래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한 특강에서 "수려한 관광문화자원을 바탕으로 제2의 정보고시대를 다 함께 펼쳐나가자"고 말했다.

/완도=정은조기자·전남주재총괄본부장

### 내달 20일 '순창 세계소스박람회'

# "세계 각국 독특한 소스 맛보세요"

세계 각국의 다양하고 독특한 소스를 한 자리에서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순창군은 오는 10월 20일부터 3일간 순창군 고추장 민속마을 발효소스도굴 일대에서 '순창 세계소스박람회'를 연다. 이번 박람회에는 전 세계 13개국 69개 업체가 참여해 94개의 부스를 운영, 국내는 물론 세계소스시장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순창군은 전년도 열린 박람회에서 순창군 전소스가 1000가지에 달할 정도로 다양했다는 점에서 올 가을 여행객들의 입맛을 돋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또 기존 해외기업관, 국내기업관만 운영하던 전시관을 산업관, 마케팅관, 전시관으로 나눠 볼거리를 늘렸고 발효소스도굴 기획전지도 강화했다.

발효소스도굴 기획전지의 경우 지난

해 열린 기획전지보다 '복을 부르는 세계음식 소스전', 6차 산업전, 장수밥상, R&D 전시전을 추가로 마련했다.

순창군은 관광객이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하고 미디어 아트존을 마련, 가족단위 나들이객을 비롯한 10만명 규모가 참여하는 박람회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국내 유명 메인 셰프와 함께 하는 순창 소스 활용 푸드쇼 등 관광객의 발길을 붙들 행사도 준비했다.

순창군은 전년도 열린 박람회에서 순창군 전소스가 1000가지에 달할 정도로 다양했다는 점에서 올 가을 여행객들의 입맛을 돋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순창군 관계자는 "순창세계소스박람회를 찾는 관광객들을 위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갖춰 만족할만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순창=장영근기자 jyg@

##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 판선·전원주택지

- 담양 월산면 월평리 전 1689㎡ 판선한 분유기 1억4500
- 장성 북이면 백양동계이트부근 전 2192㎡ 다용도가능 1억1500
- 원도 익산면 해안가 대지 607㎡ 판선을 주택과 낚시배 1억 1500

### 주택·원룸·아파트

- 서동 대지 185㎡ 상가와 5세대 전세 2억7천 월 55 법안10전환 4억
- 농성동교부근 2층 상가주택 대지 108㎡ 건물 113㎡ 1억8백
- 화정동 중흥파크2-1-1번 대지 149㎡ 주택 160㎡ 상가전용가능 2억3천
- 화순읍 동면 소재지부근 대지 320㎡ 국유지 500평도 사용 새벽출주대 60여평 실내는 판백나무 준중 갤러리 및 카페숍 최고 3억8천
- 남구 서동 2층주택 대지 125㎡ 건물 124㎡ 임대 1억5천 월15 매도 2억1500

### 투자·매도·교환

- 담양 고서면2차선점 1271㎡ 건물 212㎡ 철고·식당등적합 4억7300
- 담양 월산면 월평리 담 4846㎡ 과수원·농장적합 1억
- 무안 현경면 바닷가 전 4542㎡ 공사가 7천만 매도 8300만원
- 함평역 인근 대로점 주거지 3192㎡ 다용도 가능 2억3천

### 상가건물

- 농성동 대로점 대지 313㎡ 건물 997㎡ 병원·사육 등 적합 24억
- 월산동 신축 3층 상가주택 대지 175㎡ 매도 5억6천
- 유동 모텔 대지 422㎡ 건물 984㎡ 감정 12억 교환가능 7억8천
- 주월동 무동시장부근 대지 209㎡ 다가구 14세대 328㎡ 3억5천

### 원룸·다세대 부지

- 동명동 준주거지 294㎡ 법원과 조세대 사이 3억7천
- 신안동 상업지 358㎡ 신안지구대 부근 4억4천
- 광산구 옥동(평동) 1438㎡ 평동역에서 1.5km 14억5천

### 급매

- 해남군 17344㎡ 식품공장·냉동시설 등 적합 감정 25억 매도 13억
- 영암 삼호읍 용당리 전 4628㎡ 공사가 2억3천 매도 1억9천
- 전원주택지 담양 금성면 대성리 14479㎡ 담양호인근 1억7천
- 북구 우산동 모텔 대지 408㎡ 건물 971㎡ 27실 6억7천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 콘도 / 리조트

- 전남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748  
도곡 관광온천지구 내, 숙박시설
- 대지 2980평, 건물 1055평
- 3개동, 객실 52개, 각 호실 개별기기
- 감정가/시세 70억, 매매 42억
- 온천지구 내 '주)바리오 화순'에  
650억 투자 예정 (2018년 2월 착공)
- 문의. 010-3605-5000

##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급매

- 19층 95㎡(28평)
- 보400/월47(임대중)
- 수익률 12% 이상
- 매매 6000만원

##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급매

- 8층 49㎡(14평)
- 보200/월25(임대중)
- 수익률 12%이상
- 매매 3000만원

##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급매

- 13층 49㎡(14평)
- 보200/월25(임대중)
- 수익률 12%이상
- 매매 3100만원

## 수완지구 아파트 매매

- 광산구 장덕동 양우내안에 5층(33평)
- 초·중·고 바로 인접
- 전망 좋음 놀이터 솔무공원 전망
- 로얄동 4베이 정남향 일조권 최상
- 매매 2억 7000만원

문의 010-9203-6161